

강행위부담을 우선되어야 한다. ③ 건강행위동기는 보다 상위의 건강행위동기와 체계화되어야 한다. ④ 자가관리태도는 Internal Locus of Control 의 원리에 따라 Internality 가 되도록 한다. ⑤ 삶에 대한 희망을 지지한다. ⑥ 사회지지(Social Support) 를 계속하여 사회적, 심리적 갈등을 해소, 또는 완화시킨다.

인간의 건강행위는 행동과학의 측면에서 각 분야에 걸쳐 더욱 구체적인 면조와 이것의 임상의 활용이 요청되며 효과적인 의료와 국민의 복지가 일치되도록 건강행위의 사회 심리적인 측면의 구체적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본다.

중년여성의 건강문제 호소에 관한 조사연구

전북의대부속 간호전문대학 논문집 제10집 pp. 29~40, 1984.

안 청 자

과학문명의 발전과 활발한 가족계획사업의 영향으로 중년기의 직업여성 인구가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중년기의 간호수립을 위한 일환으로 1984년 6월15일부터 6월30일까지 J시에 거주하는 40세에서 55세까지의 직업여성 80명과 일반 가정주부95명 도합 175명을 대상으로 중년여성의 건강호소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중년여성의 직업유무에 따른 건강호소율은 직업군은 평균호소율이 19.5인데 비하여 무직업군은 23.46로 직업군보다 호소율이 높았으며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P < 0.005$)가설 1은 채택되었다.

2. 연령별 건강호소율은 $P < 0.05$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신체적 건강호소율은 $P < 0.005$ 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 교육수준별 건강호소율은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평균호소율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으나 총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4. 종교유무별 건강호소율은 무종교군이 종교군보다 건강호소율이 높고 $P < 0.005$ 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정신적항목에서는 차의 유의성이 없었다.

5. 출산자녀수별 건강호소율은 출산자녀수의 증가에 따라서 호소율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P < 0.005$ 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6. 거주주택별 건강호소율은 한옥거주자가 양옥에서 거주하는자보다 효율이 높았으나 총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7. 취미생활여부에 따른 건강호소율은 취미생활을 안하고 있는 집단이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 집단보다 호소율이 약간 높았으나 총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정신적항목에서는 약간의 차이이긴 하나 취미생활을 하고있는 집단이 안하고 있는 집단보다

호소율이 높았다.

8. 신체적 호소율을 보인 항목은 조금 일하면 고단해짐 71.9%, 눈의 피로 69.9%로 피로감의 호소율이 높았고, 요통 66.7%, 두통 57.0%, 현기증 54.6%, 어깨근육경직 54.1%의 순이었으며 열감은 43.4%, 손발에 쥐가 남 48.0%, 저림 46.8%이었다.

9. 정신적 고호소율을 보인 항목은 분노항목이 72.3%로 가장 높았으며 민감항목 67.8%, 부적응 59.4%, 불안증 51.2%, 우울증 34.5%의 순이었다.

제 언 :

1. 중년기에서 직업여성이 일반 가정주부보다는 건강하다는 본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수입이 동일한 수준에서 중년기의 직업여성과 가정주부의 건강상태를 비교하는 반복연구를 제안한다.

2. 중년여성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유희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작업을 개발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요청된다.

일부지역 미혼여성과 기혼여성의 가족계획에 대한 지식 및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중앙의학, 46권 제2호, pp. 153~160, 1984.

조길자

1984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약 15일간에 걸쳐 광주시내에 거주하는 미혼여성 212명과 기혼여성 212명을 대상으로 가족계획에 대한 지식 및 태도를 비교조사하였던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생리적 변화는(초경) 미혼여성군이 평균 15.1세 이었고, 기혼여성군은 평균 15.3세이었다.

2. 가족계획에 대한 지식경로는 미혼여성군에서 방송매체(50.5%), 정부나 보건소 발행의 책자(17.5%), 보건요원(10.8%)등의 순이었고, 기혼여성군으로 보건요원(42.5%), 방송매체(24.5%)의 순이었으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P < 0.01).

3. 가족계획 용어에 대한 인식도는 자녀수와 터울조절이란 용어를 인식한 수가 미혼여성군이 기혼여성군보다 높으며(미혼여성 45.3%, 기혼여성 25.0%)도합 35.1%이었다

4. 가족계획에 대한 찬성율은 미혼여성군은 85.5% 기혼여성군은 97.2% 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